



뉴스 송신탑

인삼밭에서 수류탄 발견

21일 오전 8시30분께 경기도 여주군 가남면 용은리 조모(29)씨의 인삼밭에서 폐비닐을 치우던 조씨가 수류탄을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조씨는 "인삼밭 경작에 쓰인 폐비닐을 치우는 데 비닐더미에 녹이 심하게 쓴 수류탄이 끼어 있었다"고 말했다.

직경 7cm, 길이 10cm의 수류탄은 안전핀이 제거돼 있었으며, 제품명이 F-1으로 한국전쟁때 북한군이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발견된 수류탄을 군폭발물 처리반에 인계했다.

경북 곳곳서 풍성한 축제

"경북으로 축제 보러 오세요."

올 한해 경북지역 곳곳에서 전통 문화와 지역 특산물, 자연 환경 등을 주제로한 다채롭고 풍성한 문화 관광 축제가 열린다.

18일 경북도에 따르면 올 해 지역에서는 5년 연속 전국 최우수 축제로 뽑힌 안동 국제탈춤페스티벌과 경주 한국의 술과 떡잔치 등 문화관광 광부가 지정한 5개를 비롯해 60여 개의 축제가 벌어질 예정이다.

다음 달 11일 청도에서는 국제소싸움축제가 막을 올린다.

5일 동안 열리는 이 축제에는 전국의 싸움소 100여마리가 출전해 왕중왕을 겨루는 체급별 소싸움 대회를 비롯해 한우 로테오 경기, 소달구지 타기, 전국 사진촬영대회 등 다양한 행사가 마련된다.

고령에서는 3월 31일부터 4일 동안 토기와 가야금 체험, 전국 가야금연대회, 창작 뮤지컬 가야의 혼 우륵 공연 등을 내용으로 한 대가야 체험 잔치가 있을 예정이다.

이어 한국의 술과 떡 잔치가 4월 15일부터 6일 동안 경주에서 열리고 '한국전통차사발 축제는 4월 29일부터 5월 7일까지 문경시 도자기 전시관 일원에서 벌어진다.

또 2006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은 9월 29일 10일 간 안동 하회마을과 낙동강변축제장에서 열리고 우리 나라를 비롯해 세계 15개국 36개 공연단이 참가해 춤 솜씨를 뽐낸다.

이밖에 영주서는 풍기인삼축제가 9월 29일부터 닷새 동안 풍기읍 남원천 둔치와 인삼시장에서 벌어지고 영양 고추문화축제와 경산 갖바위축제는 10월에 열릴 예정이다.

경북도 관계자는 "문화관광부가 2007년을 경북 방문의 해로 지정한 만큼 각종축제 프로그램을 더욱 내실화 하고 홍보 마케팅도 강화해 관광객을 더욱 많이 끌어들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인삼공사, 신학기 맞이 대축제

한국인삼공사(www.kgc.or.kr)는 신학기를 맞아 오는 20일부터 다음달 21일까지 '홍삼톤 아이패스 대축제'를 연다고 18일 밝혔다.

인삼공사는 이 기간 정관장 홍삼을 구입하는 고객 1천명을 추첨해 오는 4월 서울의 한 호텔에서 열리는 대학입시설명회 초대권과 아이비클럽 교복 교환권을 증정할 계획이다.

또 수험생용 건강식품인 '홍삼톤 아이패스'를 구입하는 모든 고객에게 최고급 홍삼비누인 진스파 한세트를 사은품으로 줄 방침이다. ☎ 1588-2304

음성 인삼약초연구소 건립 가시화

국내 최대 인삼재배지역의 한 곳인 충북 음성군에 인삼약초 연구소 건립이 가시화되고 있다.

14일 음성군에 따르면 군은 농촌진흥청의 소이면 비산리 인삼약초 연구소 건립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

달 중에 연구소 예정부지 진입로 개설공사를 시작할 계획이다.

농촌진흥청도 청사 건축설계에 박차를 가해 5월 중에 건축허가를 받은 뒤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가는 한편 올해 연구 재배지 정비사업도 벌여 내년 말까지 연구소를 완공할 예정이다.

이 연구소는 110ha에 인삼 재배지와 연구 시설을 갖추고 인삼과 약초 관련 시험, 연구는 물론 인삼 창업보육센터, 인삼 안정성 검사 센터도 설치하고 재배기술 보급 등의 사업을 벌이게 된다.

특히 군은 연구소 설립을 계기로 세척인삼 개발, 홍삼용 인삼저장기술 개발, 인삼 브랜드 개발 등 인삼 명품화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연구소가 설립되면 인삼 생산 및 재해예방대책 등에 대한 심도있는 연구가 진행돼 농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음성 인삼 명품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산인삼유통센터 운영사로 동원F&B 결정

오는 9월 22일부터 10월 15일까지 충남 금산군 인삼약초시장 일원에서 열리는 '2006 금산세계인삼엑스포'의 주 행사장으로 사용될 금

산국제인삼종합유통센터 운영업체로 식품전문회사인 동원F&B가 결정됐다.

박동철 금산군 군수 권한대행과 박인구 동원F&B 대표는 9일 금산군청 상황실에서 '금산국제인삼종합유통센터 위수탁 관리 및 운영에 관한 협약서'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동원F&B는 금산국제인삼종합유통센터가 문을 여는 오는 8월부터 5년간 이 센터를 운영하게 되며, 계약종료시 금산군과 협의해 운영기간을 연장하게 된다.

박동철 군수 권한대행은 "금산국제인삼종합유통센터 운영업체가 선정된 만큼 이센터가 문을 열면 획기적인 유통구조 개선을 통해 금산인삼의 경쟁력을 높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00년부터 269억원이 투입해 최근 완공된 금산국제인삼종합유통센터는 6만9천300㎡(2만1천평)의 터에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1만560㎡(3천200평) 규모로, 집배송장 및 도매장, 전시판매장, 저온저장고, 건조·포장실 등을 갖추고 있다.

이 센터는 물류센터 기능 뿐 아니라 인삼의 가공과 신상품 개발, 수출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



광주.전남 최초 인삼농협 결성

광주와 전남지역 인삼농가들이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인삼농협 결성에 나섰다.

400여 광주.전남지역 인삼농가는 8일 광주 서구 광천동 서광주 농협 회의실에서 '호남인삼농협' 창립총회를 갖고 상반기 중 인삼농협을 발족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기로 결의했다.

이들은 이날 창립총회에서 "광주.전남이 새로운 인삼 재배지로 부상하면서 많은농가가 인삼 재배를 하고 있으나 농가의 이익을 대변할 조합이 없어 여러가지로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며 "광주.전남은 물론 전북까지 아우르는 인삼농업 발전과 농가의 애로 해결을 위해 조합결성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이날 농림부에 협동조합 인가 신청을 한 호남인삼농협은 60일 안에 농림부로부터 농협인가가 나올 경우 농협전남본부 관할로 편입돼 회원농협 자격을 얻게된다.

이날 총회에서는 박성배(57.곡성군 옥과면)씨가 임시 조합장으로 추대됐다.

호남.충청 폭설.강풍 피해 속출

미시령 이틀째 통제.폭설 조난자 50명 구조

7-8일 전북 임실에 36cm의 눈이

쌓이는 등 호남과 충청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양의 눈이 내리면서 눈피해가 속출했다.

최대 적설량 36cm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눈이 내린 임실군 오수면에서는 인삼 재배시설 700여평이 무너지고 비닐하우스와 축사 등 50여평이 붕괴됐다.

또 장수군에서는 이모씨의 축사 170여평과 박모씨의 창고 50여평도 지붕에 쌓인 눈 무게를 이기지 못해 부서졌으며 장수읍내 비닐하우스 8개동 2천400여평이 무너지는 등 시설물 붕괴가 속출했다.

이틀째 강풍주의보가 발효중인 전남에서는 강한 바람으로 진도군 지산면 하보전리 육상 해수양식시설이 무너지는 등 비닐하우스와 양식시설 4곳이 붕괴돼 1천200여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도로 결빙으로 인한 교통사고도 잇따라 7일 오후 9시15분께 전북 장수군 변암면 M가든 앞 도로에서 남원 국도유지건설사무소 소속 15t 덤프 제설차량에 40대 남자가 치여 숨지는 등 전북에서만 크고 작은 교통사고 60여건이 발생했다.

또 전날 오후 9시31분께 전남 여수에서는 테라칸 승용차가 눈길에 미끄러져 길옆 2.5m 아래 논두렁으로 추락해 4명이 중경상을 입었고 비슷한 시각 광주에서는 버스가 빙판길에 미끄러져 승객 5명이 크게 다쳤다.

7일 오후 10시30분께 제주도 마

라도 남쪽 해상에서는 조업중이던 유자망어선 의 선원 1명이 높은 파도에 휩쓸려 해상에 추락해 실종됐다.

경기 용인에서는 연수교육을 받던 신입사원 50명이 폭설 중에 무리하게 야간산악행군을 하던 중 조난했다가 119구조대에 의해 이날 가까스로 구조됐다.

추워진 날씨 때문에 전국의 도로 결빙구간도 크게 늘어났다.

대설경보가 내려졌던 전북은 장수군 장남재 등 3곳의 통행이 금지됐으며 50여개 노선의 도내 시외버스와 시내 및 농어촌버스도 정상 운행되지 못했다.

강원도 미시령의 차량운행도 2일째 전면 통제됐으며 대구 팔공산 중대검문소-백안3거리를 잇는 10km 구간 등 대구.경북지역 11곳의 차량운행이 금지됐다.

광주에서는 시내버스 17개 노선이 우회.단축운행했고 구례 천은사~성삼재 14km, 장흥 유치 용문오거리~장평 봉림삼거리 등도 차량진입이 통제됐다.

항공기 결항도 잇따라 김포발 목포·광주·여수행 항공기 6편이 운항되지 못했으나 김포발 제주행 항공기는 오전 8시부터 바람이 잦아들면서 운항이 정상화됐다.

강풍주의보가 발효된 서남해안 등 전남 지역 48개 항로 67척 여객선과 군산.부안과 인근 도서를 오가는 5개 항로의 여객선 운항도 이틀

째 전면 중단됐다.

기상청은 오후들어 눈구름이 잦아들자 대설경보가 내려졌던 전북과 대설주의보가 내려졌던 광주.전남.대전.충남지역의 기상특보를 모두 해제했다.

기상청 관계자는 "9일 아침 찬 대륙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적으로 영하 15도-영하 5도로 추위가 이어지겠다"며 "이번 추위는 내일 낮부터 점차 풀려 예년 기온을 되찾겠다"고 말했다.

충남농협, 인삼엑스포조직위에 4억원 전달

농협중앙회 충남지역본부(본부장 유상호)는 9월22일부터 10월 15일까지 충남 금산군 인삼약초시장 일원에서 열리는 '2006 금산세계 인삼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후원금 4억원을 8일 금산인삼엑스포조직위원회(이사장 심대평 충남지사)에 전달했다.

유 본부장은 "금산세계인삼엑스포가 인삼시장의 활로를 개척하고 국내 인삼산업의 진흥을 위해 꼭 필요한 행사라고 판단해 후원금을 내게 됐다"며 "농협도 이 엑스포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금산세계인삼엑스포 입장권 공식 판매은행으로 지정된 농협은 8월까지 30만명 이상의 관람객 유치를 목표로 다음달부

터 전국 영업점과 온라인을 통해 입장권 예매에 들어갈 계획이다.

충남 금산서 '숲 올림피아드' 열린다

숲 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 마련 천혜의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충남 금산에서 숲의 중요성과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한 '숲 올림피아드'가 열린다.

금산군은 3일 "서울대와 함께 오는 5월 5일부터 2박3일간 군북면 산안리 보곡산골 및 남이면 건천리 남이자연휴양림 등에서 전국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숲 올림피아드를 연다"고 밝혔다.

'숲, 생명의 보고'란 주제로 열리는 이 행사에선 숲에 흥미를 갖고 있거나 일정한 수준의 지식을 갖춘 전국 초중고생들이 한자리에 모여 숲을 체험하고 교육을 받게 된다.

특이 숲을 자연생태계로 이해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돼 참가 학생들에게 숲이 인간과 공존하는 중요한 자연자원임을 인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또 행사장 주변에선 산꽃축제와 금산인삼체험 등 다양한 체험관광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숲 해설사를 양성하는 아카데미도 마련된다.

숲 해설사 아카데미에는 서울대 산림자원학과 교수들이 강사로 참여하며, 아카데미를 수강한 학생들은 금산생태학습장 전문강사로 활

용될 예정이다.

박동철 금산군수 권한대행은 "금산의 아름답고 풍부한 숲 자원을 인삼에 이은 새로운 특화자원으로 육성하기 위해 이런 이벤트를 마련했다"며 "이 행사를 계기로 금산의 숲을 미래 웰빙산업으로 키워나가겠다"고 말했다.

금산은 전체면적의 70%가 숲으로 우거져 있고 4천290만㎡(1천300만평) 규모의 산벚나무 군락과 야생화단지를 갖추고 있는 중부권 최대의 산림지역으로 꼽힌다.

폭설피해 허위보고 보조금 편취

충북 괴산경찰서는 2일 폭설피해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해 농민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등)로 괴산군청 직원 유모(4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같은 혐의로 공무원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경작면적을 허위로 신고해 보조금을 받은 신모(53)씨 등 농민 25명과 인삼조합직원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 등 공무원들은 2004년 3월 충북이 폭설피해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되자 인삼 재배 농민들이 보조금을 받기 위해 경작면적을 축소해 신청한 서류가 허위인 것을 알면서도 보조금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씨 등 농민들은 경작면적 2ha미만 농가에 피해 복구 보조금이 지급되는 점을 이용, 농지 소유권을 가족이 분할하거나 타인 명의로 신고하는 방법으로 경작면적을 축소해 8억2천여만원의 보조금을 받은 것으로 경찰수사 결과 드러났다.

경찰은 유씨 등이 보조금을 허위로 지급하는 과정에서 개입한 공무원이 더 있는지와 보조금을 받은 농민들과의 금품수수 여부 등에 대해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다.

파주시 '농촌 어메니티' 본격 개발

경기도 파주시는 31일 농림부 주관 농촌마을중 합개발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파평면 장마루권역을 올해부터 '농촌 어메니티(amenity)'로 본격 개발한다고 밝혔다.

어메니티(amenity)는 '쾌적함', '기분 좋음'을 뜻하는 단어로 영국의 농촌 발전과정에서 생겨났으며, 맑은 강이나 산 등 자연환경 또는 특산물이나 토속음식, 지방 고유의 축제나 문화 등을 일컫는다.

시는 모두 66억원이 들어가는 사업 추진을 위해 한국농촌공사와 경희대학교 서주환 교수에게 용역을 의뢰, 최근 기본계획을 완료했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장마루권역인 파평면 장파리, 금파리, 늘노리 등

8개 마을 465ha는 2010년까지 통합교류센터, 장파리 테마거리 등 통합교류 공간과 임진강 청정경관을 상품화한 적벽캠프, 적벽산책로 등 이색체험공간으로 조성된다.

또 생태체험공간, 지역 문화유적지를 연계한 전통문화체험공간, 도농교류 활성화를 위한 농촌문화체험공간 등이 조성되며 황복, 참게잡이 등 어업체험 프로그램도 개발된다.

청정마을로 구성된 장마루권역은 파주장단콩, 개성인삼, 친환경쌀, 참게 등 특산물이 풍부하고 적벽 등 임진강가의 수려한 자연경관, 파평용연 등 관광자원이 풍부하다.

시 관계자는 "통일안보, 역사문화관광자원과 연계해 영농, 생태, 통일안보, 역사탐방 등 다양한 체험공간을 두루 갖춘 농촌 어메니티를 건설,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가소득을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삼창고서 불 2억7천만원 피해

30일 오전 6시 26분께 충북 음성군 금왕읍 충북인삼영농조합법인 창고에서 불이 나 491㎡ 크기 창고와 보관 중이던 인삼, 기계류 등이 불에 타 2억7천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낸 뒤 45분여 분 만에 진화됐다.

경비업체 직원 주모(28) 씨는 "인삼 창고에서 화재감지신호가 들어와 현장에 출동해보니 창고에서 불길이 치솟고 있어 119에 신고했다"고 말했다.

경찰과 소방당국 현재 정확한 화인을 조사하고 있다.

증평 홍삼돼지고기 상표등록 추진

충북 증평군은 지역특산물인 인삼 부산물을 첨가한 사료를 먹인 돼지고기의 상표등록을 추진할 계획이다.

25일 증평군에 따르면 증평양돈협회 증평군지부, 충북대학교 축산학과 등과 공동연구 중인 홍삼부산물을 사료로 사용한 돼지고기 사미랑 홍삼포크를 7월께 특허청에 상표등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군은 2005년 7월 도안면의 한 양돈농가에서 150마리의 돼지에 인삼부산물을 사료로 먹여 사육한 뒤 그해 11월 충북대학교 축산과에서 육질 시험분석을 했다.

시험분석 결과 이 돼지는 일반 사료를 먹인 돼지보다 육질 및 외관 등이 우수한 것으로 나왔다.

군은 다음달 중에 다른 농가를 대상으로 돼지를 사육해 2차 분석을 한 뒤 그 결과를 기초로 상표등록을 추진하는 한편 10월 중에 개최되는

삼겹살 축제'때 소비자들에게 선보일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1차 실험에서 이 돼지고기의 맛과 육질이 우수해 상품성이 높은것으로 분석됐다"며 "돼지고기 브랜드화로 양돈농가의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인삼공사, 신학기 맞이 대축제

한국인삼공사(www.kgc.or.kr)는 신학기를 맞아 오는 20일부터 다음달 21일까지 '홍삼톤 아이패스 대축제'를 연다고 18일 밝혔다.

인삼공사는 이 기간 정관장 홍삼을 구입하는 고객 1천명을 추첨해 오는 4월 서울의 한 호텔에서 열리는 대학입시설명회 초대권과 아이비클럽 교복 교환권을 증정할 계획이다.

또 수험생용 건강식품인 '홍삼톤 아이패스'를 구입하는 모든 고객에게 최고급 홍삼비누인 진스파 한세트를 사은품으로 줄 방침이다. ☎ 1588-2304

운장산 고로쇠축제 3월9일 열려

제2회 진안 운장산 고로쇠 축제가 3월9일부터 12일까지 전북 진안군 주천면 운장산 일대에서 열린다.

'자연과 함께 하는 삶'이란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에서는 모든 참가자들에게고로쇠 약수로 지은 비빔밥이 무료 제공되며 진안의 특산품인 흑돼지와 홍삼막걸리등 다양한 먹거리를 맛볼 수 있는 장터도 마련된다.

또 고로쇠 빨리 먹기, 고부(姑婦)가요제, 음악 줄넘기 공연, 문화마당, 체험행사, 봉화봉 등반대회 등 다채로운 부대 행사도 열린다.

진안군 관계자는 "이번 축제는 웅장한 산세와 깨끗함을 자랑하는 운장산의 '고품질' 고로쇠를 맛볼 수 있는 자리"라며 "고로쇠 축제와 함께 인근의 운일암반일암과 마이산 등 유명 관광지까지 둘러볼 수 있는 만큼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성아, 농협과 후원 계약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2년차 임성아(22)가 농협 후원을 받는다.

임성아는 1일 서대문구 충정로 농협중앙회 회의실에서 농협 농업경제 이연창 대표이사와 1년 후원 계약을 맺었다.

농협은 임성아에게 1억5천만원을 지원하며 임성아는 농협홍삼 브랜드 '한삼인(韓蔘印)' 로고를 달고 경기에 나선다.

농협은 "임성아 선수의 장타력 등

이 세계 최고 품질을 자랑하는 홍삼 브랜드 한삼인과 잘 맞아 후원 선수로 맞아들였다"고 밝혔다.

2002년 부산아시아게임 금메달리스트 임성아는 2001년 아마추어 신분으로 타이거풀스여자오픈을 제패했고 지난해 LPGA 투어에 데뷔, 네 차례 '톱10'에 들어 상금랭킹 43위를 차지했다.